

#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진행

기사입력 2025-03-06 21:30:34

해빙기 취약 시설물 집중점검...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오는 3월 21일까지 충남 관내 모든 건설현장 115지구에 대해 해빙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가설구조물, 절토사면에 대한 집중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는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경미한 유해·위해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해빙기 안전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은 만큼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수칙과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사회부

**나경화 기자**

nakh67@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